

[인도 · 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방글라데시, 봉제업 최저임금 개정

2018년 말 총선이 실시될 예정인 방글라데시에서 핵심 수출산업인 봉제업의 최저 임금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봉제업의 최저 임금은 다른 분야의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41개의 산업 분야별로 최저 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최저 임금위원회 웹사이트에서 공표하고 있다.

최저 임금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사정과 서양식 인권주의

방글라데시의 최저 임금 논의는 ‘국내 사정’과 ‘서양식 인권주의’ 이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 사정’이란 국정 선거에서 여당이 표 모으기 위해 선거 때마다 최저 임금 개정을 논의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다. 이번에도 방글라데시에서 2018년 말 총선을 앞두고 있어 그 주기를 답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양식 인권주의’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는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라나 플라자(Rana Plaza)’ 붕괴 사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라나 플라자 붕괴 사고는 2013년 4월,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인근의 사바르(Savar)에서 지상 8층 빌딩인 라나 플라자가 붕괴된 사고로 당시 1,127명이 사망하였다. 특히 본 건물은 의류 생산 공장 5개가 결합된 건물로 봉제 노동자들의 피해가 컸다. 이 사건의 여파로 방글라데시에서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개선의 일환으로 최저 임금도 논의하게 된 것이다. 2014년에 이루어진 당시 최저 임금 개정이 이 사건과 서양식 인권주의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저 임금위원회의 제안

방글라데시에서는 1928년 최저 임금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1959년 방글라데시에서 최저 임금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이 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이 국회 승인 후 최저 임금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저 임금위원회는 6명의 멤버로 구성된다.

〈산업별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

의장	주로 저명한 재판관 임명
제 3자 의견인	주로 다카 국립 대학(Dhaka University)의 교수 임명
경영자 대표	주요 상공회의 대표자 임명
노동자 대표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노동자 대표 선출
해당 산업의 경영자 대표	해당 산업의 상공회의 대표 선출
해당 산업의 노동자 대표	해당 산업의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노동자 대표 선출

출처 : 방글라데시 노동법 및 노동 규칙

이번 봉제업의 최저 임금 개정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7년 11월이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5개월 이내에 국회에 최저 임금안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국회는 1 ~ 2개월 내에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빠르면 2018년 5월부터 봉제업 부문의 새로운 최저 임금이 적용된다.

봉제 업계, 3 배 인상을 요구

방글라데시의 임금지표기금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는 1가구 당 월 1만 2,200 ~ 1만 8,000타카(15만 6,930원 ~ 23만 1,603원)의 수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근에는 공무원 급여 상승 개정이 이루어져 2017년 공무원의 급여가 2배 이상 오른 바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중 가장 임금이 낮은 직종인 환경 미화원의 급여는 1만 5,250타카(196,219원)이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도 연 6% 정도였기 때문에 상승률에 맞는 최저 임금 책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18년 3월 봉제 노동자 측에서는 최저 임금을 월 1만 6,000타카로 올려 달라는 제의가 있었다. 현재 최저 임금은 5,300타카(6만 8,186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약 3배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2014년 개정 당시에도 당초의 신청 금액이 1만 타카 이상이었지만, 5,300타카까지 낮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제안 역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법에 정통한 방글라데시 오마르 칸 변호사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집약하면 8,000타카(10만 2,923원)초 수준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저렴한 임금이 강점인 방글라데시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년까지 중간 소득 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인당 소득 증가도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현재 방글라데시의 낮은 임금이 중요한 메리트인 것은 틀림 없으나, 선거 해마다 상승하는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최저 임금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일본무역진흥기구, 방글라데시, 봉제업 최저임금 개정, 2018. 04. 06

<https://www.jetro.go.jp/biznews/2018/04/15aeef9471a0086d.html>